

# 신약 임상3상 자금 절벽 해소한다 1,5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모집

-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5.11.~6.5.) -
- 정부·IBK 기업은행·수출입은행 900억 원 공공 출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5월 1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3상은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며, 실패·규제 위험이 높아 민간투자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임상3상 특화펀드는 민간 자본이 꺼리는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성되었다.

\* 현재 임상 3상 중인 파이프라인 수 : 57개(‘25년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조사 결과, 국가신약개발재단)

- (유형별) 합성신약 34종, 바이오신약 20종, 천연물신약 1종, 비공개 2종
- (질환별) 암(세포독성치료제) 1종, 암(표적치료제) 8종, 암(면역항암제) 3종, 심혈관 질환 2종, 중추신경계질환 7종, 대사질환 12종, 면역계질환 3종, 감염성질환 3종, 안과질환 2종, 근골격계질환 5종, 소화기질환 5종, 기타 6종

임상3상 특화펀드는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가 총 700억 원(정부 예산 600억 원, 회수재원 100억 원)을 출자하고,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900억 원을 공공출자한다. 정부는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며, 펀드 목표 결성액 1,500억 원의 80%(1,200억 원) 이상 조성되면 운용사가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 결성방식\*도 허용한다.

\* 최소 결성액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

### < 임상3상 특화펀드 주요 출자 조건 >

- 주목적 투자조건: 제약·바이오 분야 임상3상 추진 중인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
- 펀드 규모: 1,500억 원(복지부 및 국책은행에서 900억 원 공공출자)
- 우선 결성: 목표 결성액의 80%(1,200억 원) 이상 조성 시 허용
- 결성기한: 3+3개월(최초 3개월 부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자세한 출자조건 및 운용사 선정기준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www.kvic.or.kr\)](http://www.kvic.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임상3상 특화펀드가 혁신 신약의 임상 완주와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역량 있는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자금 공백 해소와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해 펀드 조성과 신속한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붙임> 임상3상 특화펀드 개요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2-2969)



□ **조성 계획**

- (필요성)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3상은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며, 실패·규제 리스크가 높아 민간투자자본 조달 어려움
  - 민간 자본이 꺼리는 임상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정부 투자 필요
- (투자대상)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추진 중인 기업
- (투자규모) 1,500억 원\*(정부 700억 원+국책은행 200억 원, 공공출자 비율 60%)
  - \* '26년 복지부 출자금 600억 원, 기존 펀드 회수금 100억 원, 기은 100억 원, 수는 100억 원

□ **기대 효과**

- R&D 지원 이후 대규모 임상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약·바이오산업에 민간투자 활력 제고
-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등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출자조건 >			
펀드 결성규모		1,500억 원	
출자규모	보건복지부	700억원(신규600억 원+회수100억 원)	공공 출자비율 60%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1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100억 원	
존속기간		펀드 성립일로부터 <b>8년 이내</b> * 조합원 전원동의를 거쳐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기준 수익률		IRR <b>7% 이상</b>	
조기결성방식		<b>결성목표액(1,500억 원)의 80%</b> 이상(1,200억 원)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	